

# 대학이 희망이다



이 남 식 | 전주대학교 총장

## 이남식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산업공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간공학연구실 책임연구원, 한성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사)대한인간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신동아학원 이사, 전주시지역혁신협의회 공동의장, 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디자인 강국의 꿈』, 『GUI 가이드라인』, 『제품디자인핸드북』 이외에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많은 대학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밖에 위치한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모시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극단적인 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대학이 설립된 것이 그 주된 요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를 잘 읽지 못하는 지역대학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은 뚜렷한 특색 없이 상위권에 속한 몇몇 대학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던 시대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대가 되자 잠재되었던 문제들이 속속 돌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1990년대의 대학호황기에 너무 안주한 나머지 대학의 특성화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2) 대학의 구성원들이 내부 지향화되어 지역사회와의 교류나 산학협력 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 3) 항상 차고 넘치는 교육수요로 인하여 고객지향적인 교육과정과 학생 만족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의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전주대학교의 예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살펴보자. 전주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42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이다. 그러나 이미 2001년경부터 지역의 학령인구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는 거의 지원자가 없다시피 되어 교수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지역밀착형의 대학으로 변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즉, 지역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지역혁신의 중심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시민감사축제'라는 행사를 통하여 지역민들을 대학으로 초청하여 대학을 지원해준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사은행사로 대학과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무관심했던 시민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지역대학

의 역할과 능력을 알리고, 또한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대학의 구성원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때마침 2004년부터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NURI 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전주대학교는 2003년부터 이미 이러한 방향을 예측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진입하게 되었다. 지역의 강점인 전통문화를 첨단 디지털미디어와 접목시키는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첨단제조기술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약 700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게 되어 대학의 혁신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 캠퍼스를 리모델링하고 UI(University Identity) 작업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환경을 구축하였다. 한편 아직도 많은 농업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EM(Effective Microorganisms)을 이용한 유기농 수

도작, 세계허브산업엑스포, 전주세계난산업박람회, 닥나무재배 사업, 한지산업엑스포, 궁중약고추장사업, 평생교육원의 확대 등 지역과 연계된 다수의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지역민들로부터 대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믿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자극을 주는 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학생이 돌아오며, 산학협력도 급성장하는 대학으로 탈바꿈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학의 문제보다 지역사회, 국가, 더 나가서는 아시아와 세계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5년부터는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소재한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NPIC)의 대학운영을 전주대학교가 맡게 되었다. 이 대학은 2,700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원조로 신설되었으나, 대학운영의 경험이 미숙한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으로 전주대학교의 교수와 직원이 파견되어 학사운영 및 대학행정시스템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외국에 전하는 사례가 되었다. 2007년까지 약 1,500여 명의 학생이 수학하게 되며 캄보디아의 기술인력을 훈련시켜 한국의 기업에 파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이제는 각 대학들이 저마다의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리는 경영을 한다면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며, 대학도 더불어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제 대학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먼저 발전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들이 저마다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리는 경영을 한다면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며, 대학도 더불어 살아나게 되지 않을까 한다. 이제 대학이 지역의 희망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먼저 발전해야 할 것이다.

